

‘해를 품은 달’ 개기일식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하늘에서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펼쳐졌다. 개기일식은 술라웨시, 보르네오, 수마트라, 말루쿠 섬 등 인도네시아 34개 지역 중 12곳에서만 목격됐다. 해당 지역 가운데서도 150km 너비의 비교적 좁고 긴 모양의 구간에서만 개기일식을 볼 수 있다. 아래 사진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스티칼 성원에서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모습. /연합뉴스



트럼프 3개주 경선 승리...주류와 장기전 예고

아이다호는 크루즈에 1위 뺏겨

민주당 샌더스, 미시간서 승리

공화당 주류의 공세와 후발 주자들의 강력한 추격에도,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대세를에 다시 불을 지폈다.

트럼프는 이날 남은 경선 레이스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미니 슈퍼 화요일’을 일주일 앞둔 이날 공화당 경선에서 가장 많은 대의원이 결린 미시간과 미시시피 주를 포함해 3승을 챙겼다.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이날 비준이 큰 미시간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지지 기반인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일정 부분 허물며 값진 승리를 거둬 재추격의 여지를 마련했다. 트럼프의 이날 승리에도 여전히 유권자들의 표심이 분산돼 있어 민주당, 공화 모두 경선 레이스가 장기전이 될 공산이 커졌다.

9일 오전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가 총 4개 주 가운데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권한을 가진 대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부 미시간(59명), 남부 미시시피(40명) 등

2개 주에서 완승했다. 트럼프는 가장 늦게 결과가 발표된 하와이(19명) 주에서도 승자가 됐다고 현지 방송들이 전했다. 하와이는 이날 경선 중 유일하게 코커스(당원대회) 방식으로 치러졌다.

반면 32%의 개표가 진행된 아이다호(32명) 주에서는 트럼프를 바짝 추격해온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40.5%의 득표율을 올리며 30.1%에 그친 트럼프를 제치고 승리를 확정지었다.

지난 주말 켄자스, 메인 주 등을 크루즈 의원에게 빼앗기며 독주에 제동이 걸렸던 트럼프는 이날 사실상의 승리로 오는 15일 ‘미니 슈퍼 화요일’ 대결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미니 슈퍼 화요일’에는 플로리다, 오하이오 주에서 승자가 대의원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제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진다.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이들 2개 주에서 모두 승리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해 승부는 6월7일 마지막 경선까지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크루즈 의원이 이날 다시 1승을 챙긴 데 이어 케이시 주지사 미시간 주에서 2위를 차지함에 따라 ‘반(反) 트럼프’ 전선 구축을 위한 나머지 후보 3명의 단일화가 그다지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트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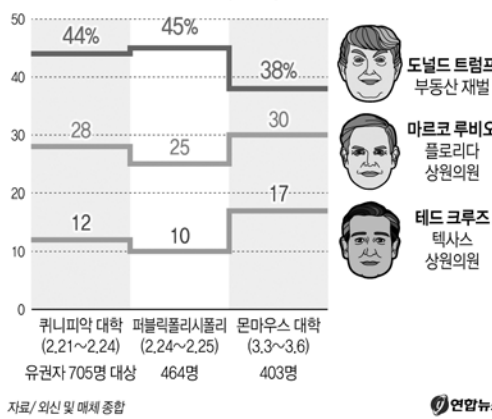
다만, 루비오 의원은 이날 출전에 더해 15일 대결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플로리다 주 경선마저 패한다면 중도하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의 경우, 클린턴 전 장관이 흑인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83%의 득표율로 남부 미시시피 주에서 샌더스의 원에게 완승했다.

하지만, 147명의 대의원이 결려 비준이 한층 컸던 미시간 주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대략 2%포인트 차로 이겼다.

비록 민주당 경선 레이스의 판세는 클린턴 전 장관에게 기운 상태이지만, 샌더스 의원은 이날 미시간 주 승리를 바탕으로

美 대선 플로리다주 공화당 후보 여론 조사 결과



자료/외신 및 자체 조망

15일 ‘미니 슈퍼 화요일’에서 클린턴 전 장관과 맞설 수 있는 발판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샌더스 의원은 미시간 주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지지기반인 흑인들의 표를 상당부분 잠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더스 의원은 선거자금도 풍부해 경선 레이스를 완주한다는 복안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샌더스는 지금까지의 경선에서 흑인 표를 평균 16% 정도 얻는데 그쳤지만, 미시간 주에서는 30% 가량 얻었다”며 예상을 갠 샌더스 의원의 승리가 흑인 표 잠식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이 호텔에 올린 왕세손 부부가 오는 6월 영국을 대표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자 프랑스의 한 5성급 호텔을 예약하려 했으나 예약이 다 찼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정은 “핵탄두 미사일 탑재 가능”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9일 핵탄두를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규격화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발언의 신빙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핵무기 연구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탄도미사일에 탑재했다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미 군 당국의 작전계획 5015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계획 등은 급격한 수정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한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크 웰쉬 미국 공군참모총장도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대



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SIS)의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소장도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소형화된 핵탄두 모형으로 추정되는 원형 물체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한미를 압박했다. 노동신문은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탄두 모형이 몽투한 KN-08 미사일 탄두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근 모형의 물체를 공개했다.

“윌리엄 왕자님, 방이 다 찼네요”

프랑스 호텔, 객실 예약 거절 “다른 손님 선약 취소 안돼”



지난 3일 프랑스 알프스에서 휴가를 보낸 윌리엄 왕세손 부부. /연합뉴스

영국 왕실의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오는 6월 영국을 대표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자 프랑스의 한 5성급 호텔을 예약하려 했으나 예약이 다 찼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아미앵에 있는 마르티 호텔에 영국 윌리엄 왕세손의 객실 예약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다른 고객의 선약을 취소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호텔은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비록 영국을 대표해 공식 행사에 참석하러 방문하지만 예약이 다 찼기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왕세손 부부는 아미앵 인근에 있는 1차 세계대전의 격전지 승 전투 100주년을 기리는 행사에 영국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프랑스 신문 ‘쿠리에 피가르’에 따르면 왕세손 부부는 승 전투 기념식에 참석차 6월 30일~7월 1일 이틀간 행사장과 가까운 5성급 호텔에 묵을 스워드룸 4개를 예약하려 했다.

이 호텔의 매니저는 지난 1월 프랑스 외무부를 통해 연락을 받았으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쿠리에 피

가르에 밝혔다. 그는 “미리 몇 달 전 예약했거나 돈을 이미 지불한 손님들에게 왕실 가족이 오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면서 “그것은 윤리에 어긋난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호텔에는 12개의 객실이 있으며, 하루 숙박비가 최고 350 파운드(약 60만2천원)에 이른다. 여행 업계에 따르면 승 전투 행사가 열리는 이 기간에 각국의 정치인을 비롯해 전사자의 후손 등이 몰려와 1년전부터 예약이 차기 시작해 아미앵에서 방을 구할 수 없는 상태다.

이 호텔은 12개의 객실이 있으며, 하루 숙박비가 최고 350 파운드(약 60만2천원)에 이른다. 여행 업계에 따르면 승 전투 행사가 열리는 이 기간에 각국의 정치인을 비롯해 전사자의 후손 등이 몰려와 1년전부터 예약이 차기 시작해 아미앵에서 방을 구할 수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신축상가 원룸 매매(전대정문) 전대 정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임대완료 정 남향 4층 주택 1층(상가 2칸) 2층~3층(원룸 6개, 투룸 2개) 4층(주택)을 주택 월수익 → 480만 매가 → 6억 8천만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전문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1층(상가) 120평 2층~7층(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매가 → 38억

법률경매 경매교육 (주)대신경매 (특수물건 추천) 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2. 광산구 우산동 (숙박시설) 3. 서구 용암동 (다가구 원룸)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5.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6. 북구 중흥동 (모텔) 수익성 상가 (주택) 1. 북구 두암동 2. 남구 양림동 3. 북구 중흥동 수익성 상가 (다가구 원룸) 1. 서구 농성동 2. 서구 용암동 3. 동구 충장로